



[뉴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다임빌라스' 가보니 02



Economy

코스피	3125.76 (0.00)	코스닥	1037.91 (0.00)
금리 (미국 3년)	1.501 (+0.002)	환율 (원/달러)	1169.10 (-0.10) (10일)

파운드리 투자 속도戰... 삼성 '결단의 시기'

역량진단 후폭풍 대학총장 줄사퇴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 격화

인텔·TSMC 대규모 투자 행보 삼성전자 '초격차' 위기감 증폭 테일러시 과격 인센티브 제시에 美 제2파운드리 부지 선정 관심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 확정설이 임박하는 분위기다. 파운드리 업계가 투자 전쟁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가 뒤처지면 안된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다.

12일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는 삼성전자에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합의문은 삼성전자가 2026년 1월말까지 170억달러(한화 약 20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해 정규직 일자리 1800개를 창출함을 전제

로 한다. 납부한 재산세에서 처음 10년간 90%, 이후 10년간 85%를 환급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하던 곳이다. 같은 텍사스주 오스틴과 애리조나 곳 이어 및 쾨크리크, 뉴욕 제네시카운드 등 다른 지역들도 투자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가 조만간 미국 투자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도 여기에서 나온다. 지역 정부와 삼성전자간 협상이 구체화하면서 투자 결정도 임박했다는 것. 삼성전자가 최근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현지로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삼성전자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다. 테일러시뿐 아니라 다른 후보지들 제안도 검토해야하는데다가, 입

지와 인프라 등 다른 조건들도 더 살펴야 한다는 이유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조만간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된지 1달여가 지난데다가, 파운드리 업계 투자 경쟁도 더 빨라지면서 위기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인텔이 가장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 초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이후 미국 현지뿐 아니라 일본 R&D 센터 투자, 글로벌파운드리 인수설까지 이어지면서 업계 2위인 삼성전자를 거세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IAA 2021에서는 유럽에도 950억달러(약 110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제조시설 2곳을 짓겠다고 나섰다. 올해에 발표한 투자 규모만 1485억달러(약 170조원)에 달한다.

대만 TSMC도 미국과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이며, 대만 가오슝에 추가 증설까지도 검토하고 하며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하고 있다.

중국도 '반도체 소티지' 효과로 반도체 굴기를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다. 올 들어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거둔데 이어, 상하이에 10조원을 투자해 공장 증설을 결정했다. 일단 무역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28나노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지만, 10나노 미만 초미세공정도 지속 도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국제반도체재료장비협회(SEMI)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국 반도체 장비 매출액은 82억2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던 것은 물론, 전년기보다도 38%나 늘어나며 가장 큰 투자를 단행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최근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종 미선정된 대학의 총장들이 잇달아 사의를 밝히면서, 학령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은 대학가에 총장 공석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가결과 발표 이후 장의 위덕대 학교 총장이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 사퇴한 데 이어 최근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광병선 군산대학교 총장도 6일 대학 측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수도권 상위권 대학인 인하대와 서울권 대학인 성신여대, 국립대학 군산대 등 일반 4년제 대학 25곳과 전문대 27곳 등 52곳을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대학으로 최종 발표했다. 평가에서 최종 탈락한 학교는 3년간 약 140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받지 못한다.

인하대·군산대·위덕대 총장 '평가결과 책임' 사퇴 잇따라

수시마감 후 추가 사퇴 우려 인구 감소, 총장 공석 이종고

◆ "교육부 평가 문제 있으나, 최종 탈락 송구"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최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신수봉 교학부총장, 원혜욱 대외부총장도 함께 물러난다. 이들은 대학 진단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임 여부는 정석인하학원이 결정한다.

앞서 교육부 결과 발표 후 인하대 교수회 등에서 조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인하대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총장과 보직자 사퇴를 요구했다. 교수회는 "교육부의 평가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나 평가에 대한 부실한 준비와 안일한 대응 또한 탈락의 주요인"이라며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광병선 군산대 총장도 6일 대학 측에 사의를 표명했다. 광병선 총장은 당시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교육부의 3주기 역량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데 대해 송구함을 느낀다"며 "이번 평가에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장의 위덕대 총장은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지난달 31일 전격 사퇴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다. 2018년 4월 취임한 장 총장은 임기가 내년 2월 말까지다. 현재는 오영호 대학원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영석 기자 ysl@

(4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lhj@



9·11 테러 20주기, 희생자를 기리며

9·11 테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쏘아올린 '트리뷰트 인 라이트(Tribute in Light)'가 11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의 밤하늘을 비추고 있다. 이 행사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9월 11일 전후로 테러 현장인 맨해튼 그라운드제로에서 펼쳐진다. /뉴시스

신고 마감 2주... 코인거래소 '빅4 재편' 현실화 되나

코인원·코빗 사업자 신고 마무리 업비트·빗썸 등 4대 거래소 생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은행 실명계정 확인서 발급과 함께 사업자 신고를 마무리하면서 국내 4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모두 사업자 신고 관문을 통과했다.

1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10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진행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

원이 심사에 착수하며,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FIU 심사위원회가 최종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인원 측은 "앞으로 거래를 합법적인 CODE를 통해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거래를 구축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에 성공하면서 신고를 진행했다.

이로써 업비트, 빗썸에 이어 두 거래소 모두 신고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른바 '국내 4대 거래소'는 모두 사업자 신고를 완료했다. 당초 업계 내에서 돌던 예측처럼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사실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마감은 이달 24일이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지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획득한 일부 중소형 거래소들은 폐업만 피하겠다는 원화 거래 중단에 나서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 서비스만 제공하면, 실명계좌 발급 없이도 ISMS 인증만으로도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의 폐업은 피하겠지만 거래소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사실상 폐업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42곳은 ISMS 인증을 받지 못했고, 이 중 24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면에 계속) /이영석 기자 ysl@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국민연금, 고리대출에 통행료·세금도 뜯는다" /사진 뉴시스
▲ 박용진 총 "박지원 배후설' 개가 달보고 짓는 형국"

▲ 사준모 "이재명, 연차 사용내역 공개하라" 정보공개소송
▲ 이준석 "尹 피의자 입건될 상황 아나... 후보와 야당 탄압 분리할 것"



▲ 원희룡 "洪,尹의 위기가 나의 기회라 생각해선 안 돼" /사진 뉴시스
▲ 정진석 "추석 앞둔 상인들, 청탁금지법 10만원 제한으로 힘들어"